365일 즐거움이 넘치는 곳!
FUNIS Screen Golf Cafe & Lounge Bowling
062) 374-8181

전남매일

MISORAE 美笑來
국제 미소래

제9609호 창간 1989년 6월 29일 36 jndn.com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음력 4월 25일)

이재명의 '에너지고속도로' 광주·전남 득일까 실일까

6·3 대선 D-12

지역균형발전 핵심 과제 속 기업 이전시 악영향 등 우려
"남부권 에너지산단 등 필요"
이준석 "광주·전남·부산 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대 정책공약'으로 제시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광주·전남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3·4면

에너지고속도로가 개통돼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지면, 광주·전남으로 이전할 기업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에너지 자립 산업단지 조성 등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대선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전남과 전북, 충남 해상풍력 에너지를 수도권 등 주요 수요지로 송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을 잇는 에너지고속도로는 RE100·탄소중립·산업재편·에너지 안보를 통합한 국가 핵심 인프라 전략이다.

에너지고속도로는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도 꼽힌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지방)에서 쓰는 곳(수도권)으로 판매하면, 그 수익으로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실제 광주·전남은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만, 송전망 인프라 미비로 전기를 생산해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데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호남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현 상황만을 고려하면 에너지고속도로는 광주·전남 재생에너지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에너지고속도로가 지역 경제에 혜택만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가 에너지고속도로를 타고 수도권으로 가면 어느 기업이 광주·전남으로 이전 또는 신규 건설을 하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에너지고속도로로 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면 굳이 지역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는 해석에서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은 이 후보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에너지고속도로 좋다. 하지만 지역에 마냥 이득이 될지는 고민해봐야 한다"며 "광주·전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에너지고속도로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면 지역으로 기업이 내려오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에너지고속도로와 함께 남부권 에너지 자립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세분화된 공약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에 대해 결이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광주 방문 자리에서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낼 게 아니라 부산과 전남·광주가 연대해 남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 기자

장애인 모의투표 체험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1일 광주시선관위에서 실시된 선거참여와 올바른 후보자 선택방법 등의 교육에 참가한 장애인들이 모의 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신안에 국내 최대 민간주도 해상풍력 본격가동

SK이노베이션 E&S 96MW 규모
전남해상풍력 1단지 상업운전
세계최대 8.2GW단지 마중물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신안 해역에서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오는 2035년까지 추진중인 총 8.2GW(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계획의 첫 완공 사례로, 향후 추진될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K이노베이션 E&S는 21일 "신안군 자은도 북서쪽 공유수면에 위치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 가동을 지난 16일부터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신안군 연안에서 약 9㎞ 떨어진 10~20m 수심의 해역에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을 하는 개발사업 단지로, 민간이 주도한 해상풍력단지 사업 중 국내 최대 규모다.

총 96MW(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기 10기가 국내 가구 평균 기준 약 9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약 3억107만kWh)를 생산하게 된다. 동일 전력량을 생산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하면 연간 약 24만t의 탄소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상업운전 개시 이후 일 평균 91만3,000kWh의 발전량을 기록하며 일 평균 발전 목표량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는 게 SK이노베이션 E&S의 설명이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위치한 자은도는 연평균 초속 7~8m의 바람이 안정적으로 불고 수심이 얕아 고정식 해상풍력 설치에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앞서 SK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 에너지 투자회사 CIP는 각각 51%와 49%의 지분을 출자해 전남해상풍력㈜을 설립했다. 2017년 9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23년 3월 이후부터 육·해상 공사에 돌입, 지난해 12월 풍력발전기 10기 설치를 완료했다.

SK이노베이션 E&S는 1단지 상업가동에 이어 CIP와 함께 2027년 말부터 2단지(399MW), 3단지(399MW)를 추가로 건설해 2031년까지 약 900MW급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용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SK이노베이션 E&S는 주민참여 제도를 통해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신안군 주민에게 공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공사 과정에서는 목포·신안지역 70여개 업체와 협력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몫을 했다.

1단지는 또 풍력발전기 타워 등 주요 기자재와 설치 장비의 75% 가량을 국내 기업과 협력해 제작한 국산화 장비를 사용,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생태계 형성과 기술 역량 강화에 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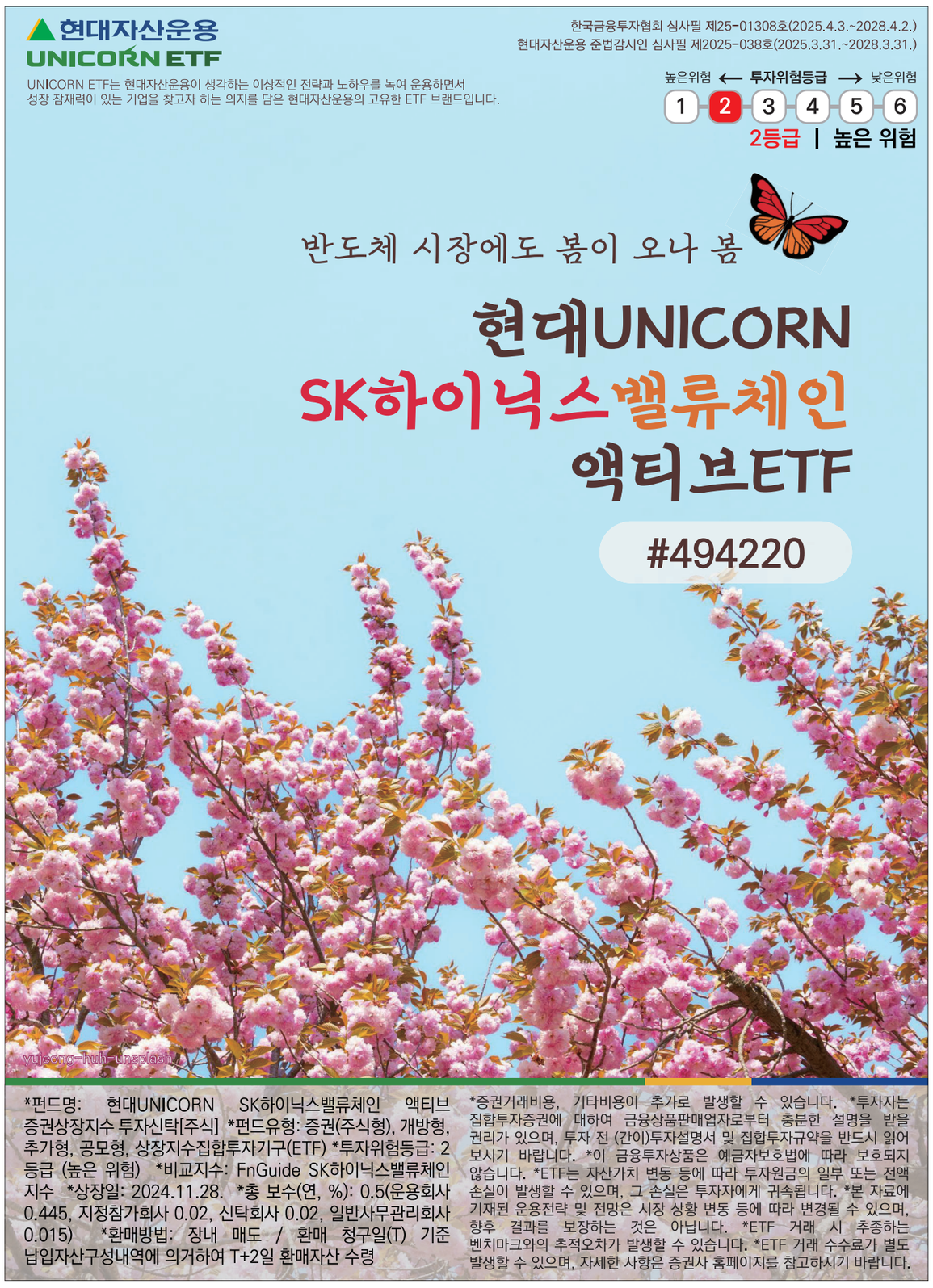
특히 국내 해상풍력 최초로 모노파일 하부구조물이 적용된 점도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힌다. 해수면에서 발전기까지 높이가 127m, 블레이드 길이가 97m에 달하는 초대형 발전기로, 해상풍력발전기 전용 설치선(프런티어호)이 투입된 단일 해상풍력발전기 중 국내 최대 규모(10MW급)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 금타 인근 대기오염도 '환경 기준 이하'

대형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지역 대기 오염도가 '환경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6·8면

광주시는 21일 화재 발생일(17일) 이후 금호타이어 주변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장 인근에 대기측정 차량을 배치해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대기환경기준 오염물질 6개 항목을 측정한 결과 모두 대기환경기준 이하였다. 다만, 오염물질이 낮은 기압에 따라 하강하고, 잔불 처리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면서 화재가 완진된 지난 19일에는 (초)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광주 전역에 설치된 대기 측정망을 통한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도 5일간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났고, 2023년 연평균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을 보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타이어 공장 화재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59종을 측정한 결과도 불검출되거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9일 실시한 공장 인근 아파트의 악취, 실내공기 질 측정 결과는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길용현 기자